

광주 눈길 교통사고 다발 18곳 광역단체 최다

제설작업 안되고 가파르고 오래된 고가도로 탓

최근 3년간 65건 발생... 도로교통공단 국감자료

눈이 오는 날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위험도로가 광주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때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가파르고 오래된 고가도로가 많은 탓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강설 시 교통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곳을 파악한 결과, 광주가 18곳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의 경우 4곳이 눈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었고, 이 가운데 나주시 노안면은 최근 3년간 7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눈 오는 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난 곳이었다. 최근 3년간 눈 내리는 날 반경 200m 안에서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사고가 난 장소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전국적으로 모두 55곳에 이른다.

이중 광주가 가장 많았고 경기(10곳), 서울(8곳), 전

북(6곳), 전남(4곳), 강원·대전·충북·충남(2곳씩), 인천(1곳) 순이었다.

광주 18곳에서는 조사 기간 눈 내리는 날 모두 6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곳당 평균 3.6건의 사고가 난 셈인데 이 기간 2명이 숨지고 132명이 상해를 입었다.

광주의 경우 눈길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곳은 치평동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숙소 근처(5건), 화정동 영주사거리·영주초등학교·유촌동 전남체신청 부근(4건씩), 상촌동 금호지구 입구(3건) 등이 꼽혔다.

또 서구 양동 서약국 앞과 북구 두암동 아가방선교원 인근에서는 눈길 사망사고가 발생해 모두 2명이 숨졌다.

소병훈 의원은 "매년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반복하는 것은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예방의지 부족 때문이며 도로환경 개선과 홍보, 안내판 설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

■ 광주 눈길 사고 다발 지역

구	지점	발생	사망	부상
서구	치평동(광주보호관찰소직원숙소 부근)	5	0	17
	화정동(영주동사거리 부근)	4	0	7
	화정동(영주초등학교 부근)	4	0	7
	유촌동(전남체신청 부근)	4	0	7
	상촌동(금호지구입구 부근)	3	0	9
남구	양동(양동서약국 부근)	2	1	1
	백운동(백운교차로 부근)	4	0	8
	운암동(동운고가 부근)	5	0	13
	임동(정든카톨릭 부근)	4	0	7
	용봉동(북부경찰서 앞 부근)	3	0	7
북구	두암동(아가방선교원 부근)	2	1	1
	운수동(KTF 부근)	5	0	7
	월계동(비아육교시점 부근)	5	0	10
	산정동(구시월드영농조합법인 부근)	3	0	5
	월계동(라인사거리A 부근)	3	0	12
광산구	도천동(광산대교A 부근)	3	0	7
	신항동(전남공고B 부근)	3	0	4
	월계동(동부아파트 부근)	3	0	3
	월계동(동부아파트 부근)	3	0	3

광주도시재생센터

개소 기념 토론회

광주도시재생센터가 27일 오전 11시 개소를 기념해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시 북구 제봉로 삼산빌딩 1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순욱 서울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협치의 해법을 발표한다.

안평환 초대 광주도시재생센터장은 "센터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협치의 거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차별 없는 균형 성장을 위한 시민의 동반자를 사명으로 한다"며 "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좋은 삶을 위해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형형색색 80만송이 국화

26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 마련된 '2017년 국화전시회'를 찾은 중흥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 개막해 다음달 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80여만송이 국화가 전시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산유원지 면적 10만㎡ 축소... 조성사업 재개될까

광주시 도시계획위, 93만㎡서 83만㎡로 심의 의결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의 면적이 대폭 축소됐다. 사업자 부도로 15년 이상 방치된 유원지 조성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26일 "지난 2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산유원지 전체 92만9857㎡ 중 급경사지 등 개발이 어려운 10만607㎡를 제외시켜 82만9250㎡로 하

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산유원지는 1976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뒤 조성사업을 벌였으나 골프연습장, 모노레일 등 일부 시설만을 설치한 기존 업체가 2002년 부도처리되면서 방치되다시피 했다. 현재 호텔과 리조트, 모노레일만이 운영 중이다.

지난 2003년 호텔과 유원지 부지 등을 인수한 나경인터내셔널(나경개발)이 추가로 매입해야 할 부지가 감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덜고 추가 조성엔 나설지 지역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지정도면 고시를 통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남구 송하동 공동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자문(안) ▲북구 신용동 골프연습

장 개발행위 허가 심의(안) 등을 논의했다.

남구 송하동 124-33번지 일원 2만823㎡에 최고 23층 4개동 268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지구단위계획은 이날 바람길, 통근속 확보를 할 수 있도록 102동 주동배치 검토 등 8가지 조건으로 통과했다. 이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효천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 당초 저층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또 북구 신용동 637-1번지 일원에 1만 8209㎡의 면적에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는 안도 이날 원안으로 의결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내년 축산 ICT 융복합사업 133억 확보

가축 질병예방 등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지원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축산분야 정보통신 기술(ICT) 융복합 사업비 133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시설 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와 신·개축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 확산을 위해 2014년 돼지 분야를 시작으로 닭, 젓소, 한우 등으로 축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4년 동안 한우 73농가, 젓소 5농가, 돼지 18농가, 닭 1농가, 총 97농가에 41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총 사업비 1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 농장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온도·습도·풍속·풍

향·악취 등 외부환경과 습도·정전·화재·악취 등 내부환경의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 ▲사육 단계별 사료 자동급이기와 선별기·사료분리 관리기·돈방별 흡수관리기·자동포유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축사의 모니터링·분석·제어 및 생산·경영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축산농가에서는 이같은 자동화 시설을 활용해 개체정보, 개체별 건강 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료 급여량을 조절하고 노동력을 줄임으로써 효과적 사양관리뿐 아니라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분석 결과, 양돈 분야의 경우 분만을 2.5% 향상, 출하 시 등급 6.9% 개선, 사료비 9.2% 절감, 고용노동비 6.6%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은 ▲온도·습도·풍속·풍

광주시 대인동·양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근거 마련

서미정 시의원 단독 발의

성매매피해자 지원 조례 통과

광주시 동구 대인동과 서구 양동 등 성매매 업소가 몰려 있는 특정 지역을 성매매 집결지로 선포해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서미정(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전날 제26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의료 지원과 교육 훈련과 직업 훈련 등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광주의 특정지역을 성매매 집결지로 선포하고 폐쇄, 정비할 수 있다.

또 관련법에 의한 성매매 실태에 대



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일단 동구 대인동과 서구 양동을 성매매집결지로 선포했다.

서 의원은 "대구의 자갈마당, 전주의 선미촌 등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 및 정비, 성매매피해자 지원 등의 사업성과가 눈에 보였던 조례이며, 광주시가 내세우는 인권도시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도시재생까지 연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의 선미촌의 경우, 조례 제정 후 관련 부서가 그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 英 APPG AI 참석 28일 출국

윤장현 광주시장이 영국 국회에서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컨퍼런스에 전문가 패널로 초청받아 28일 출국한다. 윤 시장은 오는 30일 오후 'APPG AI (영국 인공지능 상하원 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휴먼시티 광주'를 주제로 발표한다.

APPG AI는 영국 상·하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인공지능이 산업과 경제 등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한 준비 및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1월 구성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 입안자, 경제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당노콘서트

나의 인생 첫 당노학교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6시 태영21병원(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주최 · 당노와건강 원우회

강사 · 가슴 뛰는 내과 유중현 원장 | 상무역사거리 서광주로 병행 보라안과 병원 문귀형 원장 | 상무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광주21세기병원 오선종 원장 | 수완지구 관철척추병원 인 하루 치과 이광훈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 21 병원 양태영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 | 현 당노병학회 총무이사 내분비내과

공연 · 클래식 콘서트 퀸즈퀸텟

예약 · 010-5155-0075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세요, 예약 필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당영 21 병원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